

사히메야마 신사

광산의 수호신인 가나야마히코노미코토를 모신 사히메야마 신사는 과거 이 지역에서 손꼽힐만큼 풍부한 은 광맥을 자랑했던 장소 바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. 현재는 이와미 은광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하나인 류겐지 갭도 입구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가파른 바위산 위에 서 있지만, 16 세기 후반부터 17 세기 초까지 은광이 번성했던 당시에는 이 신사 주변의 산맥 전체에 대규모 광산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. 광부와 그의 가족들은 인공적으로 조성된 평탄한 계단식 부지 위에 지어진 집에 살면서 이 신사에서 매일 기도를 올리며 생활했습니다. 이처럼 사히메야마 신사는 생활의 중심지였을뿐만 아니라,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정신적 터전이기도 했습니다. 현재 그들이 살았던 주거지는 남아있지 않지만 주거용 건물을 짓기 위해 깔아놓은 돌담의 대부분은 지금도 이 근처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.

사히메야마 신사는 이와미 은광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종교 시설이었습니다. 눈에 띄게 커다란 배전 등 현재도 남아있는 건물들은 모두 1819 년에 지어진 것입니다. 배전을 이렇게나 크게 지은 이유는 오늘날까지 이와미 지역의 중요한 민속예능으로 전해지는 일종의 종교적 무용인 가구라를 상연하여 신토의 신들께 바치기 위함이었습니다.